

“고용안정 쟁취”... 카카오, 창사래 첫 파업 돌입

성남시 판교, 500여명 조합원 모여 임금·단체협약 교섭 갈등에서 고용안정·책임경영으로 확대 오는 29일 ‘로그오프데이’ 예고



10일 경기 성남시 판교역 일대에서 카카오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고용안정 쟁취’, ‘무책임한 경영진 퇴진’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유스페이스 광장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성과 보상과 고용안정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카카오 노동조합이 창사래 첫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오는 29일 출근 후 업무를 중단하는 ‘로그오프데이’까지 예고하며 장기전에 돌입했다.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 검은색 티셔츠와 흰색 우산을 맞춰 든 카카오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하나둘 광장에 모여들었다. 조합원들은 “투쟁”을 외치며 결의를 다진 뒤 판교야지트를 출발해 웹젠과 NHN 사옥 인근을 지나 유스페이스 광장까지 약 800m를 행진했다. 점심시간을 앞둔 판교 테크노밸리에는 집회 장면을 지켜보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직장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경찰 추산 5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이날 행진은 단순한 임금 인상 요구 시위와는 분위기가 달랐다. 조합원들이 든 피켓에는 ‘고용안정 쟁취’, ‘무책임한 경영진 퇴진’이라는 문구가 적혔고, 곳곳에서 ‘공정한 보상’, ‘책임 경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성과급 문제에서 시작된 갈등이 고용안정과 경영진 책임론으로 확대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

면이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 크루유니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2006년 카카오 창사 이후 처음 있는 본사 파업이다. 특히 이번 집회에는 카카오편 아니라 카카오페이, 카카오펀드라이프, 디케이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 노조가 함께 참여했다. 노조는 개별 법인의 임금 협상을 넘어 카카오 공동체 전체의 보상 체계와 고용 정책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공동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파업의 직접적인 배경은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 결렬이다. 카카오 노사는 성과 보상 구조와 임금 인상률 등을 두

고 협상을 이어왔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성과급 규모를 영업이익의 13~14% 수준으로 확대하고,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은 성과급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노조의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의외로 ‘성과급’이 아니라 ‘고용안정’이었다. 노조는 최근 조직 개편과 계열사 효율화, 사업 재편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AI 중심 사업 재편과 비용 효율화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경영 실

패의 부담을 노동자에게 떠넘겨서는 안되며, 투명한 보상 체계와 안정적인 노동 환경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이날 집회에서 “경영진의 실책과 잘못으로 회사 상황이 악화하고 있지만 그 책임을 누구도 지지 않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동체 전체 구성원의 고용안정과 책임 있는 경영을 위해 공동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의미 있는 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오는 29일에는 ‘로그오프 데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로그오프 데이는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한 뒤 업무를 하지 않는 방식의 쟁의 행위다. 노조가 단순한 하루 파업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집단행동 계획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파업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인 노사 대치 국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우려했던 카카오톡 등 주요 서비스 장애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측은 파업에 대비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서비스 안정화에 집중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단체행동 기간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최소 대응 인력을 구성하는 등 실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SKT 日·대만 ICT 기업과 ‘글로벌 AI 펀드’ 조성

7600억 규모 공동투자 자금 조성

SK텔레콤이 일본 등 동아시아 ICT 기업과 협력해 약 7600억원(5억 달러) 규모의 공동 투자 자금을 조성한다. 대규모 AI 투자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이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 DC) 인프라 및 AI 반도체 등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SK텔레콤은 일본 NTT-대만 중화텔레콤과 ‘하이온 AI 펀드’를 조성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정재현 SK텔레콤 CEO, 시마다 아키라 NTT CEO, 린롱츠 중화텔레콤 사장 등 주요 경영진이 일본 도쿄 오테마치에 위치한 NTT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3사는 펀드 운영회사 카탈라이트 캐피탈을 설립하기로 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와 동아시아를 거점으로 글로벌 펀드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를 계기로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각국이 보유한 AI, 반도체 및 네트워크 기술 역량이 글로벌 AI 생태계와 연결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에 조성하는 ‘AI 펀드’는 약 7600억원(5억 달러) 규모로, 미국·유럽·아시아 지역의 유망 스타트업 발굴에 쓰인다. 투자 분야는 ▲전력 효율 최적화 및 액체 냉각 등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AI 가속기·GPU·NPU 등 AI 반도체 등이다. 이 밖에 ▲의료·제조·금융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군의 AI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분산 시스템, 추론 최적화를 위한 AI 소프트웨어 ▲데이터 전송 성능과 전력 효율을 높이는 광통신 등도 포함됐다. /조민선 기자



재난 발생 시 소방청 우선 연결... 통신 혼잡 줄인다

통신3사, 공공안전 정부 협력 확대 ‘긴급구조 통신 우선전송 서비스’ 개시 소방대원 단말기에 전용 유심 적용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열린 소방관 우선전송서비스 출시 기념식에 참석한 (왼쪽부터)박경중 LG유플러스 대외협력담당과 홍영근 서울소방재난본부장. /LG유플러스

앞으로 대형 재난 발생 시 통신량이 몰려도 소방대원과 신고자 간 통화가 보다 안정적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10일 정부 및 통신 업계에 따르면 대형 산불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안정적인 통신 품질을 제공하기 위한 ‘긴급구조 통신 우선전송 서비스’를 개시한다. 대형 화재나 복합 재난으로 통신 이용이 급증해 망이 혼잡해지더라도 일반 이용자보다 소방청과 우선 연결·처리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소방 대원 간 소통, 신고자 및 응급 의료진과 통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연결해 통신 지연이나 끊김으로 인한 재난 대응 차질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통신3사는 소방대원 단말기에 전용 유심(USIM)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특수 서비스에서 통신망 안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KT는 소방 행정망에 5G

단독모드(SA)를 기반으로 데이터 처리 안정성을 극대화한다. LTE 망을 거치지 않고 5G 망 내에서만 데이터를 처리해 전송 지연을 축소하고 안정성을 높인다. 대상은 KT 회선을 사용하는 전국 소방청 내 업무용 단말 핸드폰, 패드, IoT 장비 등 약 8400대다. 향후에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5G 단독 망 안에서 별도로 소방 업무에 최적화된 통신 자원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를 계기로 공공 안전 분야에서 통신 3사와 정부 간 협력도 확대될 전망이다. LG유플러스 이번 서비스 도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해 10월 소방청과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통신 협력을 지속했다. 올해 5월 경남 창원소방본부를 시작으로 소방 현장에서 사용하는 단말 유심을 교체 중

이다. SK텔레콤도 이에 발맞춰 안정적인 통신 품질을 제공한다.

한편, 이번 서비스는 2011년 정부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제정한 이후 특수서비스 요건을 인정받은 첫 사례다.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트래픽을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한된 용도와 별도의 품질관리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특수 서비스로 분류해 우선 전송을 허용한다.

기존 재난안전통신망(PS-LTE)이 소방관 등 재난안전기관 종사자 사이의 통신 품질을 지원한다면, 우선전송 서비스는 신고자부터 소방관·의사 등 일반 이용자 간 통화까지 안정적으로 연결한다. 미국·독일·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두 체계를 병행해 긴급구조 대응에 활용하고 있다. /조민선 기자 msjo@

삼성SDS, AI·클라우드 보안체계 강화

美 엑스보우 등 2곳과 기업 보안 지원

삼성SDS가 클라우드 보안 전 영역을 강화한다.

삼성SDS는 국내외 인공지능(AI) 보안 전문기업들과 협력한다고 10일 밝혔다. 협력 기업은 미국 AI 보안 스타트업 엑스보우와 국내 클라우드 보안 기업 테이텀시큐리티 등 2곳이다.

삼성SDS는 기업 고객의 안전한 AI·클라우드 환경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AI 기반 취약점 탐지 ▲클라우드 통합 보안 모니터링 ▲보안 사고 대응 등 전 영역의

보안 체계를 강화한다.

먼저 엑스보우와 웹 기반 IT 자산을 대상으로 AI 기반 취약점 탐지 역량을 확대한다. 엑스보우의 AI 기술을 활용한 모의 해킹으로 기업 고객의 웹 서비스와 정보자산 취약점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찾아낸다. 이후 취약점 보안 등 후속 조치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가용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잠재적 보안 사고 가능성을 낮추며 법적·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한다.

테이텀시큐리티와는 멀티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통합 보안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 /조민선 기자

크로스 프로토콜, 독립 밸리데이터 추진

에이치랩, 첫 외부 합류

크로스 프로토콜이 첫 외부 독립 밸리데이터로 에이치랩(H Lab)을 추가하고 메인넷 2.0 ‘브레이크포인트’의 탈중앙화 확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양사는 지난 5월 네트워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에이치랩의 독립 밸리데이터 참여를 추진해왔다. 네오위즈홀딩스의 크립토 부문인 에이치랩은 이번 합류를 통해 크로스 프로토콜에서 거래를 검증하고 블록 생성에 참여한다.

밸리데이터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검증하고 새로운 블록 생성에 참여하는 검증자를 의미한다. 외부 밸리데이터가 늘어날수록 특정 운영 주체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진다.

크로스 메인넷 2.0은 총 21개 밸리데이터가 블록 생성을 담당하는 지분증명권한(PoSA) 구조로 운영된다. 크로스 프로토콜은 이번 에이치랩 합류를 시작으로 안정적인 노드 운영 역량과 네트워크 기여 능력을 갖춘 외부 밸리데이터 참여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네오위즈 “닌텐도 스위치 2서 ‘P의 거짓’ 즐기세요”

오는 8월 6일 스위치 버전 선행



네오위즈는 PC·콘솔 액션 RPG ‘P의 거짓’의 닌텐도 스위치 2버전인 ‘P의 거짓: 컴플리트 에디션’(사진)을 오는 8월 6일 정식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출시 소식은 지난 9일 열린 닌텐도의 온라인 쇼케이스 ‘닌텐도 다이렉트 2026’를 통해 공개됐다. ‘P의 거짓: 컴플리트 에디션’은 본편 ‘P의 거짓’과 DLC ‘P의 거짓: 서곡’을 함께 담은 디지털 합본으로, 판매 가격은 6만9800원이다. 현재 닌텐도 e숍에서 예약 판매를 진행 중이다.

네오위즈는 이번 닌텐도 스위치 2 출시를 통해 ‘P의 거짓’ IP의 플랫폼 확장과 글로벌 이용자 점점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머천다이즈 기업 아이엠8비트와 협업해 본편과 DLC를 묶은 실물 패키지인 ‘마리오네트 인형’ 등 스페셜 굿즈도 선보인다. 굿즈는 아이엠8비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 판매 중이며, 오는 10월 2일 글로벌 출시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